

종교개혁과 신학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종교개혁을 개혁자 루터(1483-1564)의 개혁 사역과 연관된 역사적 용어라고 본다면 종교개혁과 신학의 주제는 '죄'와 '사죄'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의 고유한 주제는 죄 가운데서 정죄 받은 인간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주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 바깥에서 질문하고 논의하는 것은 큰 과오요 독약이다."(루터)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와 의롭다 함을 받는 자리는 예배다.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

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종교개혁은 교회, 예배, 신학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2016년 한국교회와 예배의 상황에서 이 주제들을 살피고 씨름하려는 것이 본교의 목적이다.

1. 종교개혁인가 개혁인가?

교회나 제도에 대해 개혁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

용된 것은 중세 중엽부터였다. 그전에 개혁이라는 말은 거의 개인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즉 기독교자의 개혁이었다. 개혁되지 않은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는 거꾸로 개혁을 거부하는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혁은 죄인의 개혁을 말하는데, 이때 개혁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죄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종교개혁(Reformation)'이라는 우리말의 번역이 적절한가?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종교'를 제도나 교직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삶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맞는 번역이며, 그런 의미의 종교개혁은 제한적 의미에서 신학이 다룰 영역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종교개혁은 위에서 말한 믿음에 기초한 삶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자의 의미로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내걸었던 95개 조항에서 수도사 루터는 일곱 성례의 하나인 고해성사를 비판하면서 거기서 비롯된 연옥 사상과 돈으로 면벌부를 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비판하였다. 이때 루터가 외쳤던 개혁은 예배개혁이었으며, 중세의 근간이었던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인정하고 인간의 죄와 부패와 무력(無力)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인간의 전통을 비판한 개혁이었다. 죄 고백과 사죄 받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혁이었다.

2. 루터의 신학 이해

루터가 중세를 종결시킨 것은 신학의 재발견에서 비롯되었다. 루터는 1545년 비텐베르크에서 출판한 전

집의 서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1518-19년에 두 번째로 시편을 강의하였는데, 그의 서술은 이 시절에 대한 회고이다. 그는 1513-18년까지 시편(1513-15), 로마서(1515-16), 갈라디아서(1516-17)와 히브리서(1517-18)를 강의하였다. 이미 첫 번째 시편 강의에서부터 루터는 시편을 그리스도의 노래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편 22편의 "나의 하나님 이여 나의 하나님 이여"에서 루터는 자신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간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고난(Anfechtung)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두 번째 시편 강의(1518-1519)를 통하여 그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이미 시편 첫 강해에서 시편 71:2절을 "주의 의라는 말은 주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인데, 이로써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라고 주석한다. 중세교회는 인간의 보속(補贖) 행위에 기초한 사죄를 말하였으나 루터는 약속을 토대로 한 사죄를 말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이 요구하는 바를 친히 베푸시고, 명령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곧 계명과 계명의 성취가 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루터는 1518년 하이델베르크 토론에서 자유 의지의 사망을 선언하면서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cis)을 제창한다. "자기 속에 있는 바를 행함으로 은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죄에 죄를 더하고 이중으로 죄과를 지고 만다." 행함으로 은혜에 이른다고 보는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추상적이고 귀납적으로 도출한다. 그러나 루터는 "이루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인지하며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는(후적) 속성들을 보면서 인지하는 자가 신학자이다."고 한다. 보이



지 않는 속성들이란 신성, 지혜, 덕, 의, 선 등과 같은 속성들이다. 영광의 신학자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임재하심에서 하나님을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루터는 정적 추상 작업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하는 계시적인 지식을 말한다. 행위에 의한 의라는 도덕주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합리주의, 관상(contemplatio)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추구하려는 신비주의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는 욕망에서 나왔다. 그러나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라고 외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 신학과 신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보이는 속성들은 하나님의 인성, 즉 연약과 미련함이다(고전 1:25).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계시하지 않고, 십자가의 수욕과 치욕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십자가 없이 영광과 위엄을 지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허사요,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와 같이 그는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1532/38년에 행한 시편 51편 강해는 죄 이해에 기초한 루터신학의 묘미를 보여준다. 철학자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법률가는 재산의 소유주로 보며, 의사는 인간을 건강하다거나 병약하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신학자는 죄인인 인간을 다룬다. 신학자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좌절하며 지옥에서 몸부림치게 한다. 이것은 사변이 아니라 현실이며 체험이다. 그런 중에 죄인은 지옥에 빠진 자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칭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죄인은 자기편에 서신 의인, 의롭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성경은 어디서나 죄와 정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신학의 관심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이나 안녕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요 영생에 있다.

루터는 죄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성의 신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의 표상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것이 참 하나님과 참 예배에서 말하는 참 신학이다. 우리는 죄로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율법과 복음으로 죄가 계시되면, 인간 편에서는 죄를 알고 고백하거나 덮어버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고백하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루터 자신은 신학박사가 되어서도 수년 동안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3. 교회와 예배와 신학

개혁자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homo coram

Deo)'을 깨달았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입고 서면 의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에서 체험한다. 예배에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재현하며, 예배자는 응답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에서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죄고백과 사죄와 거듭남이 있는 예배가 사람과 교회를 개혁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예배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개혁과 교회개혁이다.

한국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한국교회의 설교는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이는 설교자가 생사를 걸고 말씀을 묵상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성례로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성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다시 그분과 연합한다. 예배로 은혜 받은 예배자는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며 새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으로 파송 받는다. 은혜로 사죄함을 받은 예배가 신학의 자리이다. 예배자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옛세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 받는다.

4. 개혁과 한국교회와 신학

한국교회가 서 있는 서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신학이라는 용어가 '엄밀한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학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말할'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가 성경적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것이 고대 교회의 선배들이 생각한 신학이고, 개혁의 선배들인 루터와 칼빈이 사용한 의미의 신학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신학자이다."(루터)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신학의 현장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죄인일 뿐.

참 예배자가 신학자이다. 이런 원래적인 신학 위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반성적 작업인 학문으로서의 신학도 가능하다.

개혁은 사람개혁과 교회개혁과 세상개혁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전인(全人)은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산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런 개혁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개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에서 동역자로 세우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개혁을 이루는 학문의 사명이다.

※본 칼럼은 지난 11월에 실시한 제 33회 기독교 학문학회 "종교개혁의 유산과 과제"의 주제강연 중 하나로,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원문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글 | 유해무

유해무 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거쳐 네덜란드 Kampen 개혁교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Drs.),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담당 교수이다. 저서로는 『개혁교의학』(1997), 『헤르만 바빙크』(200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신학』(2006; 공저), 『코람데오: 시편 51편을 통해서 본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2012), 『웨스터민스터교백서, 대소교리문답 해설』(2015), 『누가 새사람인가?』(2016) 외 다수가 있다.